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도시

- 내년 한해 순수국비만 2,299억원 확보 -

아산시가 내년 한해만 순수국비 2299억원을 확보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아산시를 초도 방문한 이완구 지사는 “충남발전의 동력은 바로 아산이고, 또 아산을 발전시킬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면서 “내년 한해 순수국비만 2299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개설과, 국도 21, 34, 39, 43, 45호선 확·포장 공사에 842억원을 비롯하여 탕정 TC산

업단지 진입도로 300억원, 인주해안관광도로 57억원을 확보 했으며, 천안-온양온천간, 온양온천-신창간 복선 전철화 사업에 800억원, 경찰교육원 신축공사 300억원 등 국비 확보내역을 소상히 공개했다.

이완구 지사는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지사의 몫”이라고 강조한 뒤 “4-5년 후면 1조원의 돈이 아산에 투입될 것”이라며 이산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갈 것이라면서 미리 준비한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또 아산을 교육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2008년 3월에 충남외국어 고등학교가 개교되고, 배방과 탕정에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것임을 표명했다.

특히 “원도심권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주택단지 재개발 등 인구 유입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강조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전철이 개통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심을 한바퀴 도는 벨트 하이웨이(Ring Road)가 완공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는 소견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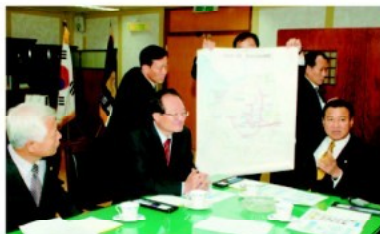
다만, “지역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은 지가가 올라

가는 것”이라면서 “지가가 올라가면 보상비로 모든 것이 들어가지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강조한 뒤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온양온천의 명성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정열도 쏟겠다”면서 아산시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 2007년 정부예산 확보내역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억원)
국가시행	총 계	2,299
	고속도로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40
국 도	국도21호(아산-천안)확포장	69
	국도34호(둔포-성환)확포장	75
	국도39호(행목-종방)확포장	116
	국도43호(배방-영인)확포장	430
	국도45호(아산-음봉)확포장	112
	인주 해안관광도로 개설	57
	탕정 TC산업단지 진입도로	300
전 철	천안-온양-신창 복선화전철	800
	기 타	경찰교육원 신축 300



▲ 이완구지사 아산시 초도방문(11월 10일)



▲ 국교전 송추교에서 연송사 입구에 이르는 1KM가 넘는 은행나무 터널

시청민원실에서는 건강체크도 한다



아산시는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동안 민원실내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1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알지만 쉽게 병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도 보고 건강도 살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체계측, 체성분 10종, 비만도, 혈압, 혈당검사, 시력측정등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체성분 데이터를 분석하여 측정결과를 그 자리에서

바로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상담도 해주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민원상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상으로 보는 아산 다양한 정보가 가득

아산시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새단장 Click!!

아산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가 말끔히 단장을 하고 새롭게 개편됐다. 아산시의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은 물론 문화관광 및 건강, 취미 등 골고루 갖춘 움직이는 생생한 동영상 정보가 가득하다.

아산시 인터넷방송국은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시청소식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생활과 밀접한 요리, 내물에 맞는 운동등의 웰빙문화 강좌 콘텐츠를 확보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풍성하고 알찬 방송국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아산시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주소 <http://abn.asan.go.kr/>)

민간아파트 분양가 원가분석 위원회 도입

아산시는 민간건설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분양승인의 객관성 확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분석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시는 토지가격과 건축비등의 상승이 분양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계 전문가와 관련분야 공무원 등 15명 이내의 분양가 원가분석 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 원가분석위원회는 시행사가 시에 분양가 승인신청을 제출 할 경우 토지 매입비, 건축비, 간접비, 금융비용, 적정이윤 등을 면밀히 조사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시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분석 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분양가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는 아파트 시행사의 아파트 분양가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분양가격을 제시하여 실수요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계획이다.



칼럼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아산

어느 듯 민초의 계절이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가로수 터널을 지나노라면 마음까지도 가을의 향취에 빠져든다. 매년 때가 되면 찾아오는 가을이지만 맞이할 때마다 새삼스럽게 느껴짐은 아마 흘러간 세월의 긴 자취 때문이 아닐까. 세월이 당기는 무게도 무게이지만 씩씩하게 저며 오는 한기의 내습은 누군가의 따스한 체온을 그렇게 하는 계절이다.

떨어져 홀로 살 수는 없다고 하여 붙여진 인간이란 말처럼 우리는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함께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다. 내 옆에, 내 이웃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사실 적잖이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 특별한잔도 남이 있음으로 불러지는 말이고 외로움도 그 근처에 '함께' 라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기에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 함께 라는 이러한 의식은 오로지 인간의 감정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윤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어찌 보면 윤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상봉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의 부재를 곧잘 비인간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한다.

결국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못나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오직을 처럼 낙엽을 밟고 지나가는 발걸음들이 바빠질 때면 더욱 더 우리는 그러한 운명의 물레를 돌리게 된다. 이웃이 눈에 띄고 친구의 따뜻한 말들이 눈

앞에서 살아난다.

누군가가 김장을 담아 불운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도, 누군가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연탄을 나눠주었다는 이야기도 겨울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따스함을 느끼게 한다. 마음 한 켠에 항상 웅크리고 있는 인간다움에 대한 갈증이 있음에도 시간을 탓하며 상황을 핑계 대며 나 홀로 세월의 바람을 가르며 다닌 행태가 부끄러워지는 때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박봉을 쪼개어 노숙자를 도와주었다고 한다. 누군가는 병마와 싸우느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느 모녀를 친 가족처럼 돌봐 주었다고 한다.

마음먹기 보다 더 쉬운 것이 행동인 것을 우리는 왜 모르고 있는 것일까? 이유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것이 사람의 생각 속이 아닌가. 그 속에 빠져 헤어 나지 못하는 헤어지기 싫은 것일까 못 헤어내는 것일까? 아리송한 의문으로 돌아 본다.

연속극 속 비운의 주인공들에게 지인이 하는 위로의 말 중에 "아무런 생각 말고 마음이 느끼는 대로 하라"는 구절이 종종 인용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만대무 상하비라는 속담을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마음 한 켠에 묻어두고 있는 감정을 아니 운명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즉 그렇게 행동하라는 말일 것이다. 이웃을 즐겁게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다. 조그만 말 한마디라도 그 일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테니 말이다. 다만 우리가 행동을 옮기는 용기가 필요할 뿐 그 이외의 다른 무엇도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인 즉 인간으로서의 본능일 것이다.

아산은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이며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할 우리의 고향이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의 낙엽이 한층 아름다운 내 고향 아산이 불어오는 바람의 싸늘함을 시원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보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걸쳐 놓은 여러 가지 의식적 장애물을 과감히 걸어내고 바로 앞에 있는 나의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자. 그리하여 세상 어느 곳보다 삶이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보자. 아산 속에서 우리의 열원이 썩 휘워지고 지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인간의 진정한 의미가 그 아름다움을 한껏 꽃 피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행동이 첫 반걸음을 내딛어 버지꾸나. 은행나무 터널 속을 걸어가는 시민의 즐거운 발걸음을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보고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제109회 임시회 개최

아산시 의회는 제109회 임시회를 2006. 11. 3~11. 15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방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2006. 11. 6.~11. 13.(6일간) 동안의 현장방문은 읍·면·동사무소 및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현안 문제점과 사업을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대안설정 및 해결방안을 모색·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동안의 현장방문과 달리 자연스럽게 겸소하게 현장방문의 일정을 마쳤다.

[주요 안건처리 현황]

□총무복지위원회

1.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2.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제109회 아산시의회 회의(본회의장)

3. 아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아산시 남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1. 아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 아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재방책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3.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재방책임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4. 아산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용화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 ⇒ 의견서채택
6.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 ⇒ 의견서채택



▲ 각종사업 현장방문

제110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

아산시의회에서는 2006. 11. 27~12. 26까지 3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110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금 등 심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및 답변 등의 안건을 처리 할 예정이다.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요구현황(건수)

합 계	총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414	224	190

제110회 제2차 정례회 개최 방청안내

□기 간 : 2006. 11. 27.(월) ~ 12. 26.(화)(30일간)

※ 제110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참고하여 방청

□장 소 : 아산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청안내 : 개인 및 단체에서는 언제든지 문의의 방청

□문의전화 : 의회사무국(Tel. 540-2509)

제3회 아산도시대전 전시회 개최

영예의 대상 Healing the City 등 68개 작품 출품

아산시는 세계속의 녹색첨단도시 건설을 목표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중부권을 대표하는 중부권 리더도시, 쾌적하고 아름다운 스마트도시 건설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아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에게 도시발전의 기대와 긍지를 심어주는 기회로 활용코자 제3회 아산도시대전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부터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산시 일원의 도시계획·개발분야와 관광개발분야를 주제로 한 아산도시대전 작품을 공모한 결과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개발부문 46개작품, 관광개발부문 22개 작품 총 68개 작품이 출품되었다. 이에 지난 10일 이들 출품작을 대상으로 관련공무원 및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작품 20점을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은 'Healing the City(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를 출품한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유인술의 4인)팀이 차지하였으며, 금상은 'Butterfly Effect(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지역 활성화방안)' 계획을 출품한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서현석외 3인)팀, 'Renewal Dogo(도고역세권 개발계획)' 계획을 출품한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조한혁외 4인)팀, 'Urban Regeneration(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재확장)' 계획을 출품한 동서대학교 건축설계학과(성복재외 4인)팀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우수작품은 오는 12월 2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전시할 계획이며 이후 국민생활관, 고숙철도역시 등을 순회하며 전시할 계획이다. 수상작품에 대하여는 작품집을 발간하여 미래 지향적인 도시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활용할 계획이다.



도시행정서비스 현장

1.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정물 손실보상시 시전에 명확한 보상기준 설정, 정확한 물건조사, 공정한 보상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개설사업 시행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와 주변 환경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차량통행 등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개설사업 시행전 1일 이내에 공사구간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가로(방범)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기동점검 수리반을 운영하여매일 10:00부터 읍·면·동 순회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 가로(보안)등 고장시 신속한 신고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찰과 신고처를 부착, 동지역은 3일 이내에 읍·면지역은 7일 이내에 보수하겠습니다.
- 가로(보안)등으로 인한 누전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 신고 접수시 즉시 응급조치하고 보수·수리시는 12시간 이내 기동수리반을 현장에 출장시켜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3. 옥외광고문화 향상을 위하여

- 불법광고물 지도·단속반을 편성 매일 10:00부터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 시민불편 및 불법광고물 신고시 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불법광고물 난립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산 서부지역 물문제 해결!

선장, 도고, 신창 지역 등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확보

아산시는 농어촌지역의 용수난을 해소하고 서부지역 기업체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50억원을 투입 관로매설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그동안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과 중소도시 지방 상수도 사업 등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상수도 사업은 우선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기업들이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선장면지역 등 서부지역의 1천여세대 3천여명의 주민들과 50여개의 기업체에 양질의 상수도

를 공급하기 위해 국비 40억원을 포함 50억원의 재원을 마련 기공식을 가졌다. 900본 규모의 도고 매수지 14,784m의 배수관로 매설과 금년중 선장면 대흥리, 궁평리, 가산리, 신문리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 내년 부터는 어려움이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해결됨은 물론 서부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에게도 농업용수가 공급되어 지역발전에 큰 계기가 될 것

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생활용수 부족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오

편의제공을 위해 재정형편도 어려운 가운데 50억원을 투입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따뜻한 겨울, 사랑의 김장 나누기

아산시와 기업 및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이웃사랑



김장은 세로부터 '겨울이 반 아산'이라 하였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동안 탐정면사무소 공작에서는 시골벽적 고무장갑을 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바빠 움직였다. 김장배추를 수확하고, 절이고, 숙냉고 12kg 1,500박스 총 18,700kg의 김장을 담기위해 아산시 간부공무원 및 가족, 삼성전자 CEO 및 가족 봉사팀, 탐정면 새마을 협의회, 방방대, 탐정종합사회복지관등이 대거 참여하여 '아산시와 LCD가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를 위해 삼성전자는 아산시 곡교천변의 땅을 활용하여 아산시 탐정면 부녀회 및 탐정 복지관과 연계하여 지난 9월에 배추 1만포기를 미리 심어 가뭄이 잡 자라지 않는 배추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정성껏 가꿔왔다.

이날 담궜던 김장은 소년소녀 가장, 무의탁 노인, 저소득 편부·모가정, 사회복지시설처, 기초 수급자, 20개 마을 경로당 등에 전달되었다.

사랑의 김장은 추운 겨울 동안 우리의 이웃들의 체감온도를 높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삼성전자 LCD 총괄 자원봉사센터 김성철 과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직접 심고 가꾼 배추로 함께 김장김치를 만들어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

이날 봉사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협회, 기업이 모두 한마음으로 '나눔'이 미덕을 실천할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도민체전 3년연속 준우승 달성

아산시 선수단이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당진군일원에서 개최된 제5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해 기량을 펼친 결과 3년 연속 준우승의 쾌거를 이룩했다.

올해는 천안을 제치고 기필코 종합1위를 하겠다는 목표로 17종목 총450명(임원 89, 선수361)의 선수단이 기량을 펼쳤으나 일부 주력종목의 초기 탈락으로 유력한 출발선에서 출발한 개최지 당진군과 치열한 격전 끝에 당진군을 따돌리고 우승기를 품었다. 첫날부터 종합2위를 유지하였지만, 개최지인 당진군(종합8위)이 홈 이점을 활용한 전략과 막판 보령시(종합4위)의 분전으로 2위 자리를 강하게 압박해 경기 마지막날까지 관계자와 선수들을 긴장시켰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민체전에서는 일부 주력종목이 약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세에 걸맞는 성적이 나와 반박하며, 내년 논란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는 부족한 종목은 보강하여 기필코 종합1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운동장까지 오셔서 열띤응원을 펼쳐 주신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시규



모에 비해 종합운동장이 없어 큰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아산종합운동장이 완공되는 2008년에는 아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재에게 기업을, 기업에게 인재를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지 아산에서 최첨단 디스플레이 국제행사 열려

충청남도 아산시가 주최하고 충남디스플레이협회, 대전MBC, 선문대학교, 충남디스플레이R&D플러스트 사업단, 충남디스플레이 인력양성사업단이 주관하는 'Crystal Valley Conference & Exhibition 2006' (CVCE 2006) 및 Crystal Valley 디스플레이 채용박람회 2006이 22일부터 24일까지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충청남도의 성장동력 핵심사업인 세계최대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육성발전차원에서 개최되었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인간과 정보를 시각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표시매체로서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핵심산업이며, 응용제품으로는 핸드폰, 노트북 PC, 컴퓨터 모니터 및 PDP/LCD TV 등이 있다. 이번행사에는 삼성전자, 삼성코닝정밀유리, 세메스, SFA 등 65개 부스를 설치해 82인치 LCD-TV를 비롯하여 40인치, 46인치, 52인치, 57인치 등 TV용 LCD 패널을 비롯해

여, 면광원(面光源)/LED 백라이트의 차세대 광원을 이용한 LCD 패널, 120Hz로 구동되는 LCD 패널 등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였다.

컨퍼런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으며 "LCD TV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삼성전자 김상수 부사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디스플레이뱅크 권상세 사장의 "평판디스플레이 시장동향 및 BLU(Back Light Unit)동향"에 대하여 기조연설을 하는 등 디스플레이업계 최고권위자들이 모여 열띤 강연을 펼쳤다.

주최측은 일반관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좀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체험관 및 교육관을 따로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기간 중 디스플레이 산업에 관심 있는 충남지역 대학생 및 고등학생 1,000여명에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역 디스플레이업체를 견학하고 디스플레이산업이 나아갈 길

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디스플레이 사업전시회와 병행하여 정보취득 및 도내 배출 인력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된 채용박람회는 23개 부스설치에 20개 업체가

참가하여 채용박람회를 통한 신규 및 경력직 우수인력의 지역 유입 유도를 꾀하여 인재에게는 기업을 기업에게는 인재를 연결시켜 주는 장을 마련했다.



아산시 실내생활체육관 BTL사업으로 건립 예정

체육활동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시는 2008년 완공예정인 종합운동장 인근에 내년부디 실내생활체육관을 건립한다.

실내생활체육관은 사업비의 장기상환과 국고보조로 단기 재정부담이 적은 반면에 시설의 조기사용이 가능한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된다.

지난 9월 기회예산처로부터 2007년도 RTI 대상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187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26,560㎡(연면적 7,000㎡)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다목적 경기장과 3,500여석의 대규모 관

람석 등을 갖추고 2009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다.

아산시는 그동안 링링, 인주 등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생활체육활동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시민들로부터 애정 어린 질타를 받아왔다.

특히 최근 공설운동장, 하키전용구장, 국제규격 실내수영장, 신정호 체육공원 조성 계획에 이어 실내생활체육관 건립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명실상부

한 체육의 메카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시민들에게 각종 생활 체육활동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실내생활체육관 건립으로 인하여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향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의 안정적인 유치가 가능하므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우리가 가꾼다

숲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며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기와

도 같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숲은 산사태를 막아주고 자연저수지이자 공기청정기이며 야생동물의 보금자리이고 또한 우리들의 쉼터이다.

시는 봄철 심는 나무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보살피고, 녹화된 산길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하여 숲을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친환경적이며 건강한 숲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영인산 일원 수목원조성 대상지 및 휴양림에서 21일 숲가꾸기를 실시하였다.

숲가꾸기 행사를 통하여 가지치기, 속아베기 등은 물론 어린나무에 대한 비료주기, 잡목소 설치 등과 함께 산불조심 캠페인, 산지정화 활동도 병행하였다.

시는 설계를 통하여 숲가꾸기 사업

1,000ha, 풀베기 227ha, 덩굴

제거 200ha 등을 사업비 8

억 9천여만원에 들어 산림

을 가꾸었으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 숲가꾸기를 통하여 관내 주요도로변 250ha에 대한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도로변의 성비로 산물보유를 차단하는 표과를 함께 누림으로서 2005년도에 이은 2년 연속 아산시 무산불 달성에도 숲가꾸기가 상당부분 기여하는 등 숲가꾸기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아산시는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산주들에게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산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산시는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숲가꾸기 과정에서 생산된 산물을 난방연료로 제공하고자 사람의 땀과 나누어 주기 행사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유관기관 소식

여러분 힘내세요!

- 고용지원센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취업지원** : 구직자의 적성과 능력을 진단하여 취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상담에서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 구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 실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생계와 구직활동을 도와드립니다.
- **진로지도** : 직업심리검사, 장스쿨(직업체험),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특강 등 초·중·고·대·대학생, 성인까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 한국폴리텍대학을 비롯한 전국 3,100여개 직업훈련기관과 함께 실업자, 근로자 및 사업주를 지원하여 평생직업능력개발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 **기업지원서비스** : 고용지원센터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 문인력활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등 각종 고용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구인·구직 정보** : 고용지원센터는 공공과 민간을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일류 수준의 고용정보망(Work-Net, <http://www.work.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과 함께 하는 일자리 제공** : 노사공동훈련지원,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취업지원민간위탁사업,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041-620-7400(cheonan.jobcenter.go.kr)



읍면동 소식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

농업·농촌에 희망을 주는 '1사1촌운동' 자매결연이 읍면면 상용2리 마을회관에서 지난 8일 읍면농협 (조합장 류의형)주관으로 상용2리 마을과 삼성 엔지니어링주식회사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날 자매결연 행사는 삼성엔지니어링(주) 최동욱 상무와 직원 25명과 현인배 시의원, 김의균 시의원, 이규명 읍면면장 및 주민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마을대표 김태식이장과 사측대표 최동욱 상무가 자매결연패를 상호 교환하는 교환식을 가졌다.



이어 오찬과 교류의 시간을 통해 농촌에는 우수한 농산물을 도시로 직접 공급하는 판로를 개척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시민에게는 신선한 농산물 수요육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농촌체험을 제공하는 등 도농간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읍면면사무소 자료제공〉



대설 - 시민행동 요령 안내

◆ 차량운전자

- 자가용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버스 등) 수단을 이용합니다.
- 설제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휴대합니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등에는 서행운전 합니다.
- 라디오, TV 등을 항상 청취하여 교통상황을 수시 파악 운행 합니다.

◆ 보행자

- 기동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 외출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합니다.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습니다.
- 걸어가는 손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갑니다.

◆ 가정에서

- 내 집 앞, 내 점도 앞 도로의 눈은 내가치우는 건전한 주민 정신을 발휘합니다.
- 내 전주변 방파질에는 열화판 숨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외출을 삼갑니다.

◆ 직장에서

-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합니다.
- 출·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수단을 이용합니다.
- 직장 주변의 눈은 내가치워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합니다.
- 직장 주변 방파질에는 열화판 숨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 농촌에서

- 봉피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재배시설은 빙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 등의 보호조치를 합니다.
- 비닐찢기 작업시 안전사고에 유의합니다.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어 하우스를 보호합니다.

◆ 매장에서

- 각종 선박 등 대피, 입출항 통제 및 결박 조치해야 합니다.
- 수산 종·양식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 해야 합니다.
- 주민, 낚시객, 행락객 등 해안가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해안도로 운행을 급급적 지양하고 인건양구 부역 등 통행해야 합니다.

아산 만평

정 세



국민생활관 제1기 수강생 모집

□ 교양 문화 강좌 : 10개과목 230명

과 목	모집 인원	요일	교육시간	교육내용
글쓰기, 독서지도	30	월	10:00~12:00	어린이 글쓰기, 독서지도
글쓰기, 독서지도 심화과정	20	월	13:00~15:00	어린이 글쓰기, 독서지도 심화과정
부모자녀 대화법	25	목	10:00~12:00	부모자녀 대화법, 자녀 양육방법 학습지도
생활도자기	25	수.목	10:00~12:00	직접 굽는 도자기
서예	25	화	14:00~16:00	문자구성 및 작품쓰기
생활영어(초급)	20	월.수	10:00~12:00	기초영어 이론 및 회화
생활영어(중급)	20	월.수	14:00~16:00	생활영어 이론 및 회화
일본어	20	목.금	10:00~12:00	생활영어 이론 및 회화
중국어	20	수.금	10:00~12:00	중국어 이론 및 회화
서양화	20	월.화	10:00~12:00	유화기초, 풍경화, 정물화

* 수강료 : 글쓰기, 독서지도, 부모자녀 대화법-18,000 원 나머지 30,000원

□ 건강 스포츠 교실

과 목	모집 인원	요일	교육시간	교육내용
댄스	초급반 20	화.금	12:00~14:00	자이브, 자차차, 롬바 등
스포츠	중급반 20	월.목	12:00~14:00	"
	저급반 20	"	14:00~16:00	"
배드민턴	오전반 60	월-금	10:00~12:00	게임요령, 기초기술
민트	오후반 60	"	13:00~15:00	"
에어로빅	아침반 30	월-토	10:00~12:00	유산소 운동을 통한 체력향상, 유연성 운동
	저녁반 30	월-금	20:10~21:10	"
월스	"	신규강사	10:00~21:00	마신웨이트 등
수영	일반화련	월-토	16:00~21:00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등
	강습화련	월.목.토	06:00~21:00	" (수.토) 자유수영

* 수강료 : 수영일반화련 42,000원 강습화련 52,000원 외 나머지 25,000원 / 교육기간 : 1개월

■ 모집기간 : 2006. 12. 1. ~ 2006. 12. 30. 까지 선착순 모집

■ 접수처 : 아산시유희복지국민생활관(본관 537-3901, 3907)

■ 등록준비물 : 수강료(재료비는 별도 본인부담), 수강신청서

■ 교육기간 : 2007년 1월 ~ 3월 (스포츠교실은 1개월)

□ 기술·기능 교육 : 5개과목 110명

과 목	모집 인원	요일	교육시간	교육내용
한식조리사(기능사)	20	월.목	10:00~12:00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생활요리	30	화.금	14:00~16:00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제철 요리 및 생활요리
제과제빵	20	수.금	10:00~12:00	직접 굽는 빵과 쿠키
한복, 양재	20	수.금	10:00~12:00	한복, 양재, 수선
출판선	20	월.목	10:00~12:00	생활소품 만들기

* 수강료 : 3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경제난(65세이상)은 수강료 70% 감면

- 시내권 셔틀버스 운영, 교육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국민생활관홈페이지 <http://www.asanlife.or.kr>



아산시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 내 · 알 림



보건소 야간 및 토요 진료 실시

아산시보건소(소장 원종성)에서는 지난 9월부터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의 경우 토요일 휴무 등으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임신관련 보건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야간 및 토요 진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매주 야간진료 실시

- 일 시 : 매주 화요일 18:00 ~ 21:00
- 진료범위 : 내과, 치과, 한방진료 등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모든 진료

□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진료 실시

- 일 시 : 매월 4째주 토요일 09:00 ~ 13:00
- 제공범위 : 예방접종, 임신부 등록관리
□ 문의처 : 보건행정담당 (☎ 537-3402)

'06년 하반기 민원인이 뽑는 『친절공무원』선발

□ 선발기간 : 2006. 12. 18~12. 29(10일간)
□ 선발인원 : 2명(시 산하공무원)
□ 대상 : 시청 방문 불특정 민원인 500명 이상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공장 및 자동차매연 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접수방법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접수 /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등을 가급적 자세히 확인
□ 문의처 : 아산시 환경보호과 (041)540-2335

여성건강운동교실 운영안내(골다공증·요통·요실금 교실)

□ 일 시 : 2006. 12. 5~12. 15 화, 목, 금(2주과정) 10:00~11:00
- 화요일(12. 5, 12. 12) : 요통교실
- 목요일(12. 7, 12. 14) : 골다공증교실
- 금요일(12. 8, 12. 15) : 요실금교실
□ 장 소 : 아산시보건소 2층 대회의실
□ 대상 : 골다공증, 요통, 요실금 질환자 및 예방운동 필요자(여성)
□ 내 용 :
- 여성의 골다공증 관리 예방법(한방, 식이관리, 운동요법)
- 요통 관리 및 예방법 이론교육 및 운동지도(자세불균형 교정운동, 기본적인 스트레칭)
- 여성요실금과 과민성 방광 이론교육 및 요실금을 예방하는 골반근육운동지도
□ 강 사 : 비뇨기과 전문의, 한방의,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 문의처 :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41) 537-3432

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일 시 : 2006. 12. 1. ~ 2006. 12. 8.(8일간)
□ 대 상 : 2005. 12. 1. 현재 관내등록 자동차
□ 부과액 : 50,312원 / 4,234백만원
□ 납 기 : 2006. 12. 16. ~ 2006. 12. 31.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접수 일시증지

□ 중지기간 : 2006. 12. 1. ~ 2007. 2. 28.(동절기)
□ 대 상 : 아산시 전지역
□ 중지사유 : 동절기 부설공사 예방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를 입은 사람의 유사녀(幼子女)에게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및 피부양 노부모에게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중증후유장애인(본인재활보조금) : 월 15만원
- 피부양 노부모 : 월 15만원
- 유자녀 지원(18세 미만)
*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 월 20만원
* 중·고생 장학금 지원(접수는 3월과 9월 2회)
* 학교장 이외의 수상경력 또는 직전학기 석차 70% 이내
* 분기당 중학생 20만원, 고학생 30만원

□ 문의처 : (042) 033-4333-5

제1회 국민연금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활용하기 위해 오는 12월4일까지 '제1회 국민연금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응모자격은 전국 2년제 이상 대학생(휴학생 포함)이 해당되며, 공모주제는 ▲국민연금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방안 ▲국민연금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국민연금 고객마케팅을 위한 민원서비스 아이디어 ▲소득파악이 어려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적정가입 유도 방안 등을 제안서식에 작성 국민연금공단(www.nps4u.or.kr/youthidea)에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 한편 출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최우수상(1편) 장학금 200만원, 우수상(2편) 장학금 각 100만원, 장려상(5편) 장학금 각 50만원, 가작(10편) 장학금 각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심사결과 발표는 2007년 1월 25일에 발표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041-550-8902)로 문의하면 된다.

시정신문 무료배부안내

「아산뉴스」가 매일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아산뉴스」는 아산시정과 행사, 생활정보 등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아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 발간되는 아산뉴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540-2020(아산시청 공보체육과 홍보담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산 휴양림 눈썰매장 개장

□ 운영기간 : 2006. 12. 23 ~ 2007. 02. 12(52일간)
□ 운영내용 : 눈썰매장, 스낵하우스, 숲속의 집 등
□ 개장일시 : 2006. 12. 23(토)

코람데코 합창단 정기연주회

□ 공연일시 : 2006. 12. 7. 19:00 ~
□ 장 소 : 국민생활관 극장
□ 주 관 : 아산소년소녀합창단

2006 장애인복지관 후원 감사의 밤 행사

□ 일 시 : 2006. 12. 1(금) 17:00 ~ 19:30
□ 장 소 : 아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참석인원 : 350명(장애인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
□ 내 용 : 사업보고 및 축하공연 등

청소년 송년 웨스티발

□ 공연일시 : 2006. 12. 4.(월) 18:00 ~
□ 장 소 : 국민생활관 극장
□ 주 관 : 연극협회아산지부

충남교향악단 초청연주회

□ 공연일시 : 2005. 12. 12(화) 19:00~
□ 장 소 : 국민생활관 극장
□ 주 관 : 충남교향악단
□ 후 원 : 아산시, 아산시립합창단

아산시립합창단 단원모집

□ 모집부문 및 인원 : 5명(악보담당1, 소프라노2, 테너2)
□ 모집일정 :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2006. 11. 27 ~ 2006. 12. 8(10일간)
- 실기시험 : 2006. 12. 13(수), 10:00
→ 장 소 : 국민생활관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06. 12. 18(목).
- 면접시험 : 2006. 12. 21(목), 10:00
→ 장 소 : 아산시립합창단 연습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12. 28(목).
→ 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 현인원 44명 → 신규모집 후 인원 49명

아름다운 음성의 Harmony 아산시립합창단

아산시립합창단은 2000년 8월 창단되어 올해로 7년째, 2000년 11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지난 23일 음악과 함께하는 가을여행이라는 주제로 제1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12월 12일에는 17시 국민생활관 극장에서 춘남교향악단과 협연을 한 계획이다.

시립합창단은 다양한 레퍼토리로 시민과 하나되는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순회연주회, 신정호 여름음악회,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격조 높은 아산문화예술활동을 이끌어가고 있다.

혁신한 기획과 연출로 고전음악에서 현대음악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음악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 왔으며, 감동의 무대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또한 박으로



는 각종 공연 행사에 초청되어 아산시의 문화예술을 알리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아산시립합창단원들은 신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 마음을 담아 시민이 있는 곳에 한창다미. 한창다미 있는 곳에 각뚫이. 각뚫이 있는 곳에 아산시민의 삶의 풍요로움이 함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맑고 투명한 정제된 소리를 바탕으로 영혼을 움직이는 세계적인 전문적인 한창단으로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대상을 수상한 도고온천초등학교와 도고초등학교로 구성된 사물놀이팀 공연 모습



현충사 은행나무길 걸어볼 수 있다

현충사 은행나무길은 2000년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이 주최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거리숲 부문 우수상을 급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한국의 아름다운길로 선정되었으며 공종파와 여러 신문지상에 소개되어 전국적인 명소로 가을철 은행나무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현충사 은행나무길은 1973년 현충사 성역화 공사당시 350본을 식재하여 10m 높이로 자란 수령 30년이 넘는 은행나무기 티널을 이루며 국교천을 따라 약 1.2km 이어졌다.

이곳을 찾는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차없는 거리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마치 자신이 영화속의 주

인공인 것처럼 낙엽을 밟으며 걸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달려오는 차들로 갇힐 수 있어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지난 10월 초도방문시 국도39선까지 이어지는 "624번 지방도 설계비 10억을 내년 예산에 책정하겠다"고 약속하므로써 39호선까지 1.7km가 연장 개통이 되면 은행나무길이 보행자 전용도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열차속 송곡리 주민들이 624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인 개설한지 몇 년만에 현충사 은행나무길은 전국에서 걸어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각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